

제17회 동해 17th Choompae Baegimsae Performance

배기금새  
정기공연

1부 몸~부림

2부 이름 없는 수초(水草)들의 노래

**일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23일(토) 오후 3시, 6시**  
**장소 :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안무·출연 : 최은희

출 연 : 최은희, 정미숙, 하연화, 신은주, 김미정, 김경아, 이주현, 이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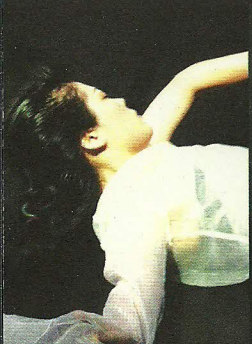
지 도 : 하연화 (춤패 배김새 대표)

안무보 : 신은주 (춤패 배김새 상임안무)

의 상 : 김영곤

생음악 : 김영찬, 장영진

음 악 : 편집



정미숙



하연화



신은주



김미정



김경아



이주현



이현정

**춤패 배김새**는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현 시대를 대변하며 관객과 함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춤을 만들고자 1985년 12월, 최은희 교수(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창단된 순수 민간예술 단체이다.

《배김새》란 부산·경남 일대의 고유한 춤사위 명칭인 '땅에 깊이 내려 박다'라는 뜻으로 지역 춤꾼으로 지역의 땅을 확고히 다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배김새의 주요 작품으로는 86년 창단공연작품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그린 '히로시마 오늘, 1989', '그날 이후', '아리랑 진혼무', '백의' 등이 있으며,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창작으로는 '도시의 새', '이름 없는 별' 등이 있다. 춤패 배김새는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통해 예술로서의 한국무용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정체성을 찾고자 정기공연 및 다양한 기획공연을 쌓아가면서 아울러 실험성이 강한 '음악과의 만남', '연극과의 만남', '옛 춤판 공연' 등을 이어가고 있다.

# 춤패 배김새

## 제 17회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을 올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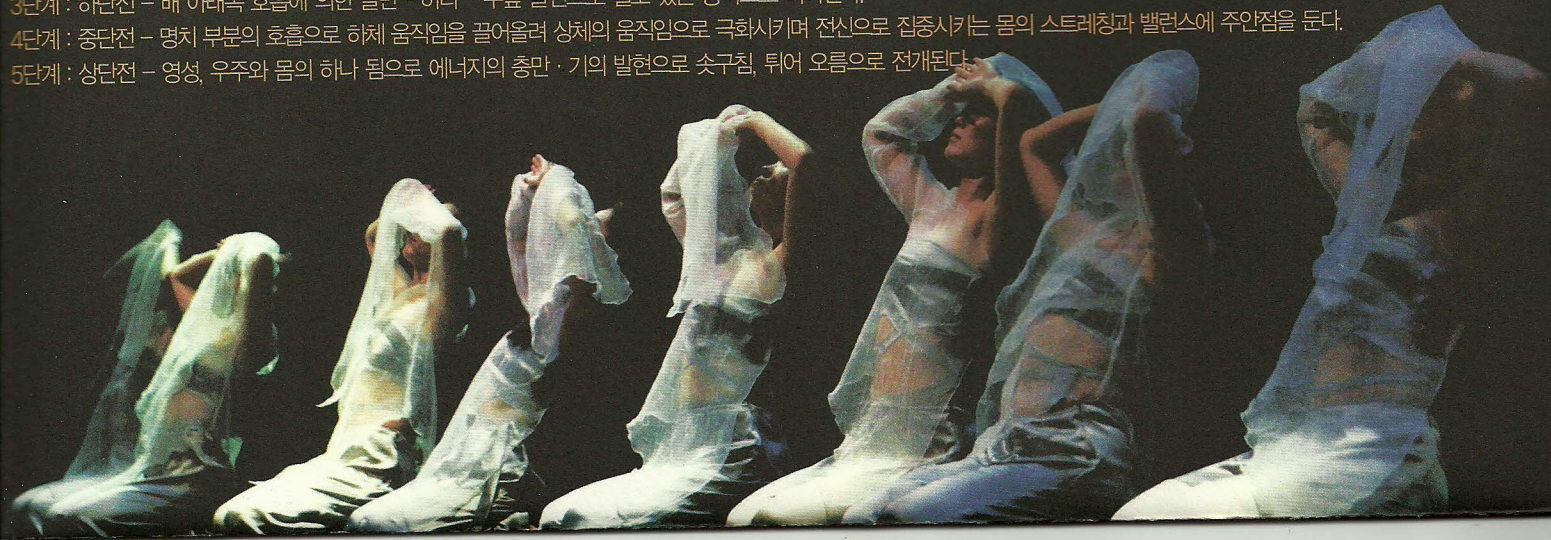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것 - 이는 당대 예술인이자 모든 작가의 공통 과제일 것이다. 예술 창작이란 바로 작가 의식의 표출이며, 무용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가는 곧 '주제성'과 '주제에 부합되는 춤 언어'의 문제이다. 작가에게서의 커다란 화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어법에 의한 자신의 춤'을 과연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에 올려 질 춤패 배김새의 무대는 총 2부로 나누어진다. 1부(몸~부림)에서는 창작춤 메소드를 위한 몸 만들기이며, 2부에서는 배김새가 지난 20여 년 간 천착해온 주제였던 동시대의 아픔과 모순,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그린 주제들로서, 이를 농축된 춤 언어로 풀어내어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 「이름 없는 수초들의 노래」를 올린다.

## 몸~부림 Body~Struggling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이 '숨'이다. '숨'은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호흡법은 몸 움직임의 에너지 원천인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하여 5단계의 몸 현상으로 전이하면서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신체 훈련법이다.

- 1단계 : 행선에 의한 발바닥(응천)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감지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 2단계 : 원단전 · 회음혈 - 원초의 기운이 발하는 곳에 의한 호흡으로 땅의 기운을 느낀다.
- 3단계 : 허단전 - 배 아래쪽 호흡에 의한 골반 - 허리 - 무릎 골신으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이어진다.
- 4단계 : 중단전 - 명치 부분의 호흡으로 하체 움직임을 끌어올려 상체의 움직임으로 극화시키며 전신으로 집중시키는 몸의 스트레칭과 밸런스에 주안점을 둔다.
- 5단계 : 상단전 - 영성, 우주와 몸의 하나 됨으로 에너지의 총만 · 기의 발현으로 솟구침, 튀어 오름으로 전개된다.



# 이름 없는 수초(水草)들의 노래

## Song of a Waterweed without a name

### <작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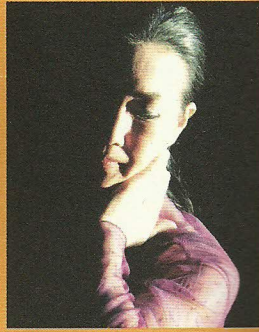
바람에 후후 밀려  
강변을 맴도는 이름 없는 수초처럼  
어느새 눈물의 가장자리로 흘러들고  
떨어지는 눈물을 매만지기 전에  
또다시 떠밀려 떠밀려 가네  
어디로, 어디로 ...

### <프롤로그> - 몸 맞이

地 - 모체와 대지의 장 /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 생명의 탄생  
水 - 시간, 공간의 흐름의 장 / 물의 이미지  
火 - 대립의 장 / 수난, 방향, 저항의 요소  
風 - 전환의 장 / 새로운 기류의 시간·공간의 장

### <에필로그>

사방풀이 - 총체적 모습  
으로써 하나 됨.  
모든 갈등의 화합과 다시  
쫓구지는 생명력



안무 최은희 경성대 교수

### <작품 의도>

이 작품은 우리 전통 사상으로 깔려있는 사상인 몸에는 잠재적인 카르마(업)에 의한 결합되는 4원자들의 집합요소로 '땅의 요소(地), 물의 요소(水), 불의 요소(火), 바람의 요소(風)' 로 설정,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의 몸, 우주와 인간의 내적 호흡 순환질서로서의 흐름,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이다.

### <작품 특성>

- 각 장은 독자성을 띠고 있다.
- 음악은 장에 따른 효과로 배경 위주가 된다.
- 무용수들은 지·수·화·풍 이미지에 따라 다각적으로 변신한다.
- 춤 동작 : 상징적 이미지나 등장인물에 의한 표현 기법으로 처리하고 음악에 의한 무의미한 동작을 되도록 배제시킴.
- 전형적 기법의 틀과 각 개인의 즉흥성 유도와 개인감정을 극대화시킴.

| 총감독 | 최은희 | 예술감독 | 정미숙 | 대표 | 하연화 | 상임안무 | 신은주

| 단 원 | 윤보경, 전현철, 손미란, 홍이경, 이지영, 한수정, 이화성, 김민경, 박영애, 박정은,  
안영주, 정경희, 황정옥, 김윤희, 김현주, 이정아, 조은정, 김미정, 김경아, 성하진,  
이주현, 이현정, 정수임

### <스텝>

| 무대감독 | 김민경

| 흥 보 | 손미란

| 음 향 | 박진주

| 진 행 | 조은정, 정수임, 김경혜, 박수정, 이해정

